<문제1>

제시문 (가)와 (나)는 낭비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가진다. 제시문 (가)는 인간이 낭비하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작업과정에서 낭비가 되는 요소를 줄이려 한다.

먼저 제시문 (가)와 (나)는 낭비를 없앨 수 있는가의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제시문 (가)는 인간이 자신의 활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아본위에 있어 당연하다고 말한다. 이는 인간이 활력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제시문 (나)에서 길브레스는 벽돌쌓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줄이려고 한다. 이는 일에 있어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문 (가)의 관점과 다르다.

그리고 제시문 (가)와 (다)는 낭비의 유용성에 대한 관점도 다르다. 제시문 (가)는 인간은 도락읠 발현을 통해 문학, 과학 등을 이룬다고 말한다. 이는 인간이 활력을 낭비하는 것이 고등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시문 (나)는 작업에 있어 낭비를 작업속도를 낮추고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본다. 이는 낭비는 유용성이 없어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제시문 (가)의 주장과 반대된다.

위 제시문들을 활요하면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시활동에 대한 이해방식을 비판할 수 있다. 먼저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보면 제시문 (다)는 낭비를 삭제의 대상으로 잘못 보고 있다고 비판 가능하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낭비는 인간본위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시문 (다)는 낭비를 쓸모없는 것으로 본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인간의낭비가 고등 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하였기에 제시문 (다)의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보면 제시문(다)는 낭비를 없애는 데 변칙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비판 받을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낭비를 없애는 과정을 생각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반면 제시문 (다)는 쓸모없는 기억이 망각되었다 다시 기억날 수 있다고 하였기에 비판 가능한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나)의 길브레스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작업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줄이려 한다. 그는 가장 편한 자세로 일을 할 수 있게하며 시간의 낭비를 줄이려 한다. 그리고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는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공개시간이 길수록 사건을 정확히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가지 원리를 결합한다면 경쟁률이 높은 회사의 채용과정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우선 경쟁률이 매우 높다하였으므로 서류심사에서 다음 심사로 통과하는 인원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즉 서류심사 통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길브레스처럼 작업의 시간 낭비를 최소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면접심사에서는 최대한 밝은 공간에서 심사를 하고 최대한 장기적으로 면접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에서 최초 공개시 사진이 희미한 정도가 가장 낮을때 사진이 정확히 인지된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지원자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밝은 공간에서 면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공개시간이 길수록 사진을 정확히 인지하였음으로 면접시간을 길게하여 심층적인 면접을 한다면 합리적인 채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길브레스의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잘 결합시킨다면 지원자 중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들을 효율적으로 판별 가능하다.